

# 지역간 실업격차와 빈곤형성에 관한 연구

## Regional unemployment disparities and the formation of poverty in Korea

이원호 (백상경제연구원, wonholee@beri.re.kr)

지난 40여년간 고도성장을 통한 분배효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계층구조의 형성에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작하여 외환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득 분극화의 진행은 소득격차의 가속화와 신빈곤의 구조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의 분극화와 신빈곤의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 내 질적이며 양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질적인 변화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내 기술 분극화의 진행이 저급 노동시장을 차별화하여 임금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득의 분극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원호, 2002).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내 양적인 측면인 고용기회의 변화, 즉 실업의 역동성이 신빈곤의 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 속에서 고용성장의 지역구조가 갖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제한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의 뚜렷한 지역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업의 측면에서 보면, 1989년 이후 지역노동시장내 실업의 변화는 상당한 정도로 지역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며, 특히 실업률이 갖는 지역구조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고정적인 모습을 지닌다. 지역내 실업은 지역노동시장의 인적자본의 특성과 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위기이후 신빈곤의 형성 및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 기제중 실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실업의 지역구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정책면에서도 실업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업의 지역통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지역노동시장내 실업과 고용성장간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관련성과 고용성장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내 실업은 취업의 기회확대와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초한 실업대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한다. 결국 공간적 불일치와 기술적 불일치에 대한 현상분석과 지역노동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